

지행론에 관하여(독행편, 성명론, 사단론)

金芝英*·宋一炳*·高炳熙*

1. 獨行篇에서의 知行論

獨行篇은 東武의 저서중 現存하는 가장 초기의 것으로 四象醫學의 思想이 형성되는 根柢를 알 수 있는데 주로 知行하는 方法에 대해 論한 바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獨行이라는 篇名에 대해, 獨行은 中立하고 倚하지 않고 和하되 휩쓸리지 않는 '不動心'이라 하였다.

他人의 誠과 僞를 아는 것이 知人하는 것이며, 知人하는 것이 곧 不動心 및 中庸을 이루는 方法으로 보았다. 즉 中庸之道를 性의 學으로 이해하고 君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상대를 不惑되게 관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篇名 獨行 何義耶 曰 好而知其惡則 中立而不倚 惡而知其美則 和而不流 如此者 自然獨行 獨行者 不動心

知人誠僞則 不惑 不惑則正心 正心則不動心 不動心則避世中庸而無悶

知人の 방법은 반드시 진실로 誠身한 然後라야 (堯舜, 孔孟 등) 능히 人의 誠과 僞를 아는 知人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만약 誠身하지 못하면 人의

誠을 보지 못하고 僞를 알 수 없고 立誠하더라도 정도에 따라 知人에도 끝만 아는 것, 반중심만 아는 것, 중심을 아는 것등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蓋己誠未盡則人僞難悉 己僞有存則人誠亦疑 惟天下至誠不僞 能盡其性然後 可以悉人之誠僞 如此者 堯舜也 孔孟也 衆聖也

竭智而察人則 無不知人也 而必也 誠身然後 知人 云者 何也 曰 雖則察人 必也立誠 不見其晝 則不知其夜 不見其夏則不知其冬 不見其是則不知其非 不見其誠則不知其僞 是故 欲知人者 雖竭知千百而 若其誠不立則 終莫能知人之僞而悉其情也

有知人之外面者 有知人之中心者 有知人之半中心者 知人亦有層層

立誠하기 위한 구체적 對象은 仁義禮智를 들었고 知人해야 할 人之僞(虛僞)의 對象은 鄙薄貪懦를 들고 그 各各의 屬性을 설명하고 있다.

仁義禮智의 理心은 知人하는데 있어서 파악하기가 힘드므로 이에 違反되는 鄙薄貪懦의 心慾을 파악하여 知人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心慾을 관찰하는데 重點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東武는 惡人이라 할지라도 仁義禮智의 꾸준한 마음이 있고 好人

* 경희대학교 사상의학과

일지라도 輕薄한 마음이 있으니 그 이름에 혼동되어 實體를 잃지 않게 表와 中, 陰陽, 內外, 親疎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禮者顯允 仁者樂易 義者整齊 智者闊達

鄙者陋褻薄者狡回 貪者驕橫 儒者詐僞

雖惡人也 有仁義禮智之恒衷 雖好人也 有貪鄙懦薄之陋慾

不揣其本而齊其末則 方寸之木 可使高於K樓 不採其實而 混其名則 數尺之朽

爲良工所棄 存乎表者 莫良於眸子 存乎中者 莫良於廉恥

必見其陽 又見其陰 乃知鄙心 必見其與 又見其奪 乃知貪略 必見其內 又見其外 乃知薄情 必見其親 又見其疎 乃知懦弱

凡人도 聖人처럼 懿德과 善才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잘 修養하라고 하는 가운데 ‘四端’ 즉 惻隱之心, 辭讓之心, 羞惡之心, 是非之心이 인체의 四臟인 肺脾肝腎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聰明함과 禮義에 맞는 行動 등의 善才는 사람의 일차적 감각기관인 耳目鼻口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衆人은 私慾에 가려져 堯舜과는 달리 聽視言貌와 學問思辨이 홀출하지 못한 점이 다르다고 하였다. 또, 生理的 器官인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지닌 그들의 生理的 機能과 아울러 동시에 倫理的 能力까지 갖고 있다는 입장을 알 수 있다.

이는 哲學의 관념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人體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臟器와 感覺器官에 연결시킴으로써 철학적 과제(倫理道德의 知行)의 實踐이 막연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몸을 돌보고 修行하는 구체적 行動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思想과 凡夫의 臟腑와 器官도 聖人の 그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 修行을 잘하면 聖人에 이를 수 있다는 思想을 볼 수 있다.

惻隱之心出於肺 辭讓之心出於脾 羞惡之心出於肝 是非之心出於腎

是故凡人之有肺脾肝腎者 不修則已 若修之則 皆懿德也

四聰之達出於耳 四目之明出於目 中禮之言出於口 中禮之貌出於鼻

是故凡人之有耳目鼻口者 不修則已 若修之則 皆善才也

堯舜之耳目鼻口 不蔽於私而 善於聽視言貌 衆人之耳目鼻口 蔽於私而 不善於聽視言貌 堯舜之肺脾肝腎 不蔽於慾而 善於學問思辨 衆人之肺脾肝腎 蔽於慾而 不善於學問思辨

以上에서 東武는 君子가 不動心함으로써 中庸에 이르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性’(眞實)과 ‘僞’(虛僞)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고서, 그 性의 지표로서는 ‘仁義禮智’의 四德을, 僞의 지표로서 ‘鄙薄貪懦’의 네가지 惡德을 들어 그 각각의 屬性에 대하여 四象類型的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獨行篇은 東武의 哲學書로 비교적 初期의 思想을 잘 나타내주는 바 후에 東醫壽世保元의 醫學思想을 이루는 土臺가 된다.

2. 性命論에서의 知行論

성명론은 동무의 사상의학의 근거를 설명한 사상 철학관이라 할 수 있는데 天機, 人事의 우주관으로 시작하여 實心, 實氣하는 윤리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의학이나 철학의 기본 정신의 설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東武는 人體의 四象構造를 나누고 이에 天人知行을 聯關시켜 설명하고 있다.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頤臆臍腹 行其知也
頭腹腰腎 行其行也

天, 人의 關係는 大同, 各立으로 보고 知, 行의 關係는 博通, 獨行으로 보고 있는데 “博通者 性也 獨行者 命也”라 하여 臆臍腹이 知하는 내용이 性(博通者)에 해당하는 籌策, 經倫, 行檢, 度量이고 頭肩腰腎이 行하는 내용이 命(獨行者)하는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이라 보았다.

天時 大同也 事務 各立也
世會 大同也 交遇 各立也
人倫 大同也 黨與 各立也
地方 大同也 居處 各立也
籌策 博通也 識見 獨行也
經倫 博通也 威儀 獨行也
行檢 博通也 材幹 獨行也
度量 博通也 方略 獨行也
大同者 天也 各立者 人也 博通者 性也 獨行者 命也

東武는 性, 命에 대해서 慧覺과 資業으로 보고 德과 道로 설명하고 있다.

性은 慧覺으로 실현되고 (仁義禮智나 忠孝友悌의 諸般百善을 말함) 이에 德이 생하고 命은 資業으로 실현되고 (士農工商이나 田宅邦國의 諸般百用을 말함) 이에 道가 생긴다고 보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生活의 衣食 手段으로 보고 있다

이로 볼때 東武는 宇宙의 四元構造를 天人性命으로 설명하는데 이들은 모두 人間을 중심으로 對外的

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天機와 人事로, 對內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慧覺인 性과 資業인 命으로 보고 있어 天人性命은 人間 中心의 宇宙觀임을 알 수 있다.

天生萬民 性以慧覺 萬民之生也 有慧覺則生 無慧覺則死 慧覺者 德之所由生也
天生萬民 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由生也

東武는 博通者인 性과 獨行者인 命은 正心, 正行을 말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邪心, 怠心을 警戒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人間의 本性은 好善, 惡惡之心과 같은 肯定적인 것과 怠心, 怠行과 같은 否定적인 것이 同時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人間의 四元構造를 人性의 四元構造(天人知行)와 人格의 四元構造(天人心身)로 설명할 때 이는 모두 人體의 四元構造인 耳目鼻口, 肺脾肝腎, 頤臆臍腹, 頭肩腰腎의 有形的 구조에서 비롯된 機能으로 보고 있다.

人之耳目鼻口 好善無雙也
人之肺脾肝腎 惡惡無雙也
人之頤臆臍腹 邪心無雙也
人之頭肩腰腎 怠心無雙也

즉, 耳目鼻口의 好善하는 마음은 行路之人이 大同於協義에서 나온 極公한 것이고 肺脾肝腎의 惡惡하는 마음은 同室之人이 各立於擅利하여 나온 極無私한 것으로 好善과 惡惡은 모두 對外的 要素에서 생긴 것이고 頤臆臍腹에서 나온 邪心은 우리 몸에 있는 不息之知가 不能博通해서 나온 것이고 頭肩腰腎의 怠行은 우리 몸의 不息之行이 不能獨行해서 생긴 것으로 邪心과 怠行은 모두 對內的 요소에서 생긴 것으로 보았다.

耳目鼻口之情 行路之人 大同於協義故 好善也

好善之實 極公也 極公則亦極無私也
 肺脾肝腎之情 同室之人 各立於擅利故 惡惡也
 惡惡之實 極無私也 極無私則亦極公也
 頤臆臍腹之中 自有不息之知 如切如磋而驕矜伐
 夸之私心 卒然敗之則自棄其知而不能博通也
 頭肩腰臀之下 自有不息之行 赫兮L兮而奪侈懶
 竊慾心 卒然陷之則自棄其行而不能正行也

따라서 이 邪心和 慾心を 절제하여 存心, 養性해 修身, 立命하게 되면 곧 堯舜과 같은 聖人の 知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東垣은 人性에는 好善, 惡惡, 怠心, 怠行하는 性善的 요소와 性惡的 요소의 양면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중에서 天人的 好善, 惡惡보다 知行的 怠心, 怠行을 더 중시하고 있다. 즉 耳目鼻口의 好善之心과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은 衆人이나 堯舜이 다 같지만 衆人의 頤臆臍腹에 숨겨져 있는 誣世之心을 存心, 養性으로 극복해야 堯舜의 知가 될 수 있고 衆人의 頭肩腰臀에 숨겨 있는 罔民之心을 修身, 立命으로 극복해야 堯舜의 行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東武의 人性論은 知行的 人性論임을 알 수 있다.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
 養其性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存心, 養心하는 德은 바로 “好人之善而我亦知善” 하는 것이고 修身, 立命하는 道는 바로 “惡人之惡而我必不行惡” 하는 것이라 하고 知行을 쌓으면 道德이 되고 道德이 이루어지면 곧 仁聖이 된다하여 性命이나 道德보다 知행이 더 우선함을 말하였다. 人格의 四元構造로 말하면 天人心身으로 보며 人格을 나누어 知人, 賢人, 愚人, 不肖人으로 區分되는데 知人, 賢人보다는 愚人, 不肖人을 相對로 평소 責

心, 責氣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 人體의 清濁이 결정되고 人格이 구분된다고 보았고 知行的 修不修에 따라 人性의 善惡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好人之善而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惡人之惡而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
 知行 積則道德也 道德 成則仁聖也

道德은 知行으로 요약되고 性命 또한 知行으로 요약된다.

道德 非他 知行也 性命 非他 知行也

3. 四端論에서의 知行論

東武은 人性을 논할 때(獨行篇, 反誠箴) 君子, 小人(君子는 仁義禮智之心으로 나타나고 小人은 鄙薄貪懶之心으로 나타난다) 으로 나누는데, 四端論에서는 聖인과 衆人으로 代替하여 설명하고 있다. 聖인과 衆人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天理와 人慾이고 이 중 衆人은 사상유형적으로 心慾에 집착한 鄙, 薄, 貪, 懶의 四人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

鄙薄貪懶之人的 四人은 그 心地清濁이 人慾의 闊狹에 따라 수 만가지로 다르다.

즉, 天理의 變化에 있어서 聖인과 衆인이 같으므로 聖인과 衆人 모두 太小陰陽의 四象人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人慾에 있어서는 心地清濁이 수 만가지로 다르니 사람마다 각각 다른 特性을 갖게

된다. 이는 인간의 정신인 心과 육체인 肺脾肝腎으로 나누어 천부적인 人稟臟理의 대소와 人趨心慾의闊狹를 이용해 네 체질의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懶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慾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聖인과 衆人の 臟理는 같은 것이고 才能에 있어서도 聖인과 衆人の 才能이 같으며 단지 衆人이 聖인에 못미치는 것은 才能 때문이 아니라 心의 罪 때문이라 보았다.

然則天下衆人之臟理 亦皆聖人之臟理而才能 亦皆聖人之才能也
以肺脾肝腎 聖人之才能而自言曰 我無才能云者 豈才能之罪哉 心之罪也

衆人이 聖人에 이르는 방법은 肺脾肝腎 四臟에서 나오는 浩然之氣와 心에서 나오는 浩然之理를 이용하는데 浩然之氣와 浩然之理는 仁義禮智를 擴充하고 鄙薄貪懶의 心慾을 明辨하여야 얻을 수 있다 하여 知行論的인 方法論을 설명하고 있다.

浩然之氣 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 出於心也 仁義禮智四臟之氣 擴而充之則浩然之氣 出於此也 鄙薄貪懶一心之慾 明而辨之則浩然之理出於此也

喜怒哀樂이 暴動하고 浪動하는 것은 知行이 不誠하고 不明하기 때문이라 하여 知行을 喜怒哀樂의 性情 概念으로 파악하고 있다. 喜怒哀樂의 갈등이 모두 知行의 부족에서 온다고 보았다

天下 喜怒哀樂之暴動 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知人不明也

喜怒哀樂의 概念은 知行論의 개념에서 性情論的으로 발전된 것으로 太少陰陽의 臟腑大小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作用하다고 설명하고 東武의 四象體質醫學論으로 발전하게 된다.

太陽人 哀性 遠散而怒情 促急 哀性 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 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地